

▶ 다음 질문으로 서로의 마음문을 열어보세요.

Q. 요즘 자주 듣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찬 135장) / 오직 믿음으로 / 밤이나 낮이나 / 다시 복음 앞에

▶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 모임기도 (셀리더 또는 맡은 사람이 기도해주시면 됩니다.)

▶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

(히브리서 13장 8-9절 | 개역개정)

▶ 금주 말씀 되새기기 /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생활”

1. 복음이 사라진 교회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교회에서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팀 켈러, 존 맥아더, 마이클 호튼 등의 신학자들은 교회가 복음 대신 율법주의, 성공주의, 세속화, 정치적 이념 등에 치우치는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복음이 아닌 번영과 성공이 강조되며, 율법적 규율이나 심리적 위로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 안에 복음이 흐르게 하십시오!"라고 강력히 외칩니다.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2.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교회는 그분이 가르치신 복음을 진리로 믿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에서는 음식 규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고, 율법을 지키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자유를 누리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하며, 율법이나 전통이 아닌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단사상, 성공주의, 정치적 이념 등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3. 영적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라!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것이 곧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부활절을 맞아 복음을 실천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4.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예수님께서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베다니와 같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 아래의 질문으로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을 가지세요!

1. 지난 28주간 선포된 히브리서 강해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시고, 왜 그러한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셀원들에게 소개해주세요.
2. 히브리서 13장에서는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는데, 최근에 삶에서 실천해 본 복음의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앞으로 어떻게 더 실천할 수 있을까요?
3.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말씀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나요? 예수님이 변함없으시다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직접적인 의미를 줄까요?

▶ 나누었던 내용과 더불어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지 않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 율법주의나 세속주의, 성공주의가 아닌 순수한 복음이 선포되도록
-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도록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 삶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나누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교회 밖으로 나아가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

-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도록
- 선교와 구제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도록
-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 지금은 '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면 좋습니다.)

- 거룩한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 셀 리더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